



‘스페인 싱글 빈야드의 선구자, 장 레옹 와이너리’

장 레옹 지지 샤도네이

JEAN LEON GIGI CHARDONNAY

지역	스페인 > 까탈루냐 > 페네데스		
포도품종	샤도네이		
알코올	13.5%	용량	750ml
시음 적정 온도	11~14℃		
테이스팅 노트	파인애플·망고 같은 열대과일 향에 버터리한 노트와 토스트 오크, 스파이스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아로마가 특징이다. 입 안에서는 생기 있고 신선하게 시작해 풍부하고 실직한 질감의 풀바디로 전개되며, 잘 어우러진 활기찬 산미가 긴 여운까지 이어진다. 황금빛이 감도는 짙빛 컬러를 띠며, 과실·바닐라·토스트가 어우러진 우아하고 지속적인 피니시를 선사한다.		
페어링 TIP	흰 육류 / 익힌 해산물 / 붉은 살 생선 / 흰 살 생선 / 익힌 채소 / 부드러운 치즈 / 단단한 치즈 / 훈제/염장 음식 / 밀가루 음식(피자, 파스타 제외)		



제품설명



스페인 페네데스 지역의 프레스티지급 싱글빈야드 샤르도네로 와이너리 설립자 장 레옹이 딸 Gigi를 기리기 위해 만든 와인이다. 1967년 식재된 5헥타르 규모의 포도밭에서 재배된 100% 샤르도네로 양조되며, 프렌치 오크 배럴에서 약 6개월간 발효·숙성 후 병입 숙성을 거친다.

와이너리



토레스 파밀리아 와이너리는 1870년 스페인 페네데스의 빌라프랑카 델 페네데스에서 설립되었지만, 그 뿌리는 16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. 다섯 세대를 이어오며 가족 와이너리의 정체성을 지켜왔고, 오늘날 우리의 와인은 전 세계적으로 높은 명성을 얻고 있다. 브랜드 비즈니스는 1928년부터 시작되었으며, 오랜 세월을 걸쳐 발전시켜 온 증류 기술과 술레라 숙성 방식은 깊이 있는 풍미와 균형감을 만들어낸다. Drinks International 2022에서 3년 연속 전 세계 판매 1위 & 트렌드 1위 브랜드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으며, 오늘날 토레스 브랜드는 단순한 주정이 아닌, 전통과 혁신을 동시에 담아내는 스페인 가문의 상징으로 남아 있다.

※ 와인의 이미지와 빈티지, 블랜딩 비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.
 ※ 와인은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온도에서 뉘어서 보관하시기 바랍니다.